

## 동성애에 관한 선교신학적 연구\*

### A Missiological Study on Homosexuality

옥 필 훈 (Pil-Hun Ok)\*\*

#### ABSTRACT

The social issue of homosexuality, along with the paradigm of postmodernism, is theological system and interpretation. It has an impact. It's about homosexuality at a time when many countries recognize same-sex marriage. Gender Ideology has discussions and opposite movements over the anti-discrimination law. Men and women are those who wear the image of God and are in God's creative order. In the Old Testament, homosexuality was treated as an abominable sin that God did not allow, and in the New Testament, it was confirmed through Paul's interpretation. Regarding homosexuality, which contains social issues, criminality, heredity, sexual orientation, and the meaning of modern human rights were dealt with. Legal, medical, and theological issues were also discussed. The homosexuality problem is facing many challenges in the church today. Homosexuality is a sin that violates the creative order of God, but within the church, it is necessary to lead with the love of Jesus Christ, comfort the pain, and pastoral care with love.

**Key words:** homosexuality, God's creative order, Imago Dei, anti-discrimination law

\* 2024년 8월 2일 접수, 8월 22일 최종수정, 8월 28일 게재확정

본 논문은 2023년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임

\*\* 전주비전대학교(VISION College of Jeonju) 아동복지과 교수,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235, phok@jvision.ac.kr

## I. 들어가는 말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적 이슈 중의 하나가 동성애 문제이다.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국가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동성애(同性愛 : Homosexuality)란 동성(同性)을 향한 성적인 끌림(sexual attraction), 동성과의 성적인 관계(sexual behavior), 동성애자로서의 성적체성(sexual orientation) 등을 말한다(길원평 외, 2016: 23). 동성애의 원인에 대하여서는 선천적으로 내분비계의 호르몬의 균형이 맞지 않을 때 혹은 유전적 구성(genetic make-up)의 결과로 보게 되는 조성이론(constitution theory)과 동성애를 사람과 그의 환경 사이에 후천적으로 얻어진 성적 지향이라는 환경이론(environment theory)으로 대별된다(김승호, 2016: 354).

동성애자들은 자신을 성소수자(sexual minority)라고 부른다.<sup>1</sup> 성소수자란 남자 동성애자(gay), 여자 동성애자(lesbian), 양성애자(bisexual) 등을 지칭하였으나 요즘은 트랜스젠더(transgender), 젠더 퀴어(gender queer), 중성 또는 간성(intersex)도 포함하여 ‘성소수자’라고 주장한다(김지연, 2023: 55). 동성애자들은 동성간 성행위를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센터의 성적 소수자사전에 따르면, 성적 지향은 성적 행동의 경험 여부로 증명되지 않고 성적 선호 또는 성적 취향과도 다르며, 스스로를 어떠한 성적 범주로 표현하는 성적체성과도 구별된다고 한다.<sup>2</sup> 동성애자들은 사회에서 동성애자임을 스스로 밝힐 때에는 커밍아웃(coming out)이라는 다소 도전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이러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하여 그들은 소위 “성적 소수자”로서 인권보호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성적인 지향이 한 개인의 임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 개인을 둘러싸는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요인들이 매우 복잡하게 상호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백상현, 2017: 149).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에이즈(AIDS :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감염자가 급격히 증가 추세에 있다. 2001년「국가인권위원회법」에 차별금지사유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었다. 질병관리본부의 ‘2014 에이즈 신고 현황’에 의하면 2014년 에이즈 환자는 남자 8,885명(92.4%), 여자 730명(7.6%)이다.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년)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의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김지연, 2023: 433).

1) ※ 본 논문은 2023년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임

\* 전주비전대학교(VISION College of Jeonju) 아동복지과 교수,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235, phok@jvision.ac.kr

‘성소수자’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는 4건으로「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거제시 소셜 미디어 운영 조례」, 「홍천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이다. 참고문헌으로는 음선필(2020). “동성애와 인권” 교회와 법 제6권 제2호, 한국교회법학회, 144.

2) 참고문헌으로는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적소수자사전>

동성애에 대한 역사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고대 그리스에서는 성인 남성과 미소년 사이의 성관계를 높이 평가하였는데, 오직 남성의 육체만이 완전한 것이어서 완전한 장년 남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더욱 완전한 사랑이라고 여겼다(최성훈, 2016: 98-99). 초대교회에서 어거스틴은 고백론에서 하나님의 법은 보편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동성애를 비판하였다(김태식, 2020: 199). 중세 스콜라 신학자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Summa Theologica(II-II, 154)에서 동성애는 올바른 이성에 반하는 행동이며 자연적인 질서를 위배하는 정욕에 빠진 행위로 보았다(김태식, 2020: 202). 중세 카톨릭교회 제3차 라테란공의회에서 동성애를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하고 사법적 처벌을 시행하였다(최성훈, 2022: 612). 근대에 들어서는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새롭게 평가되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가 성충동(Libido)이라고 주장했던 지그문트 프로이트(Freud, 1856-1939)와 칼 융(Jung, 1875-1961)은 성적인 충동은 인간의 본능적인 에너지요 힘이라고 주장하였다(Tarzian et al., 2023: 6).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도덕적 선택에 있어서 일반적 의견일치가 이루어지는 시대인 모던 시대가 주를 이루어졌지만, 21세기의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는 개인적인 선택을 더 우선시하고 존중하게 되는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이 도래하였다(김승호, 2003: 57). 이와 더불어 현대의 성 연구자들은 한 개인의 성적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19세기 후반기에서는 교회법을 벗어나게 되었다(김태식, 2020: 203). 한편 동성애를 과학적인 시각으로 보게 됨에 따라 동성애자들은 생물학적인 질병으로 여겨졌고 정상적이지는 않다는 의미에서 이반(二般)이라고 지칭하기도 하였다(최성훈, 2020: 612). 유교적인 전통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는 매우 부도덕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1980년대 에이즈 확산에 따른 위기의식이 대두되었고, 남성 동성애자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어 동성애 문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연세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퀴어영화제는 9월 19일 개막식 당일 반동성애적 심의와 관계기관의 제지로 문을 닫아야 했고, 이후 2000년 홍석천의 커밍아웃을 계기로 사회의 이슈를 만들기 시작하였고, 2000년 9월 8일 제1회 퀴어문화대축제가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되는 등 대규모 성소수자집회가 열리며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2009년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선 대구에서 최초로 퀴어문화축제가 열리었다. 2019년 제20회 서울퀴어문화축제(5월 21일-6월 9일)는 주최 측 추산인원으로 축제 인원 7만 명, 퍼레이드 인원 8만 명이 참석했다(김광수 외, 2020: 232). 서울퀴어문화축제는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소규모로 진행되었으나, 그 후 3년만에 2022년에는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1만 3000여명이 참여하였고, 2023년과 2024년도에는 서울특별시에서 서울광장을 불허하여 서울광장 인근서 퀴어축제를 진행한 바 있다.<sup>3</sup>

3) “서울광장 인근서 퀴어축제...”서울 한복판을 우리의 자긍심으로” 연합뉴스(2024.06.01)일자 기사내용  
<<https://www.yna.co.kr/view/AKR20240601034000004>>

이와 더불어 한국의 일부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국회에 8차례 제안되었고 2021년 6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넘어서며 해당 법에 대한 논의가 쟁점화 되었지만 그 이후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sup>4</sup>

그리스도인에게 일차적인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있다. 성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계획과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예수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교에 입각하여 자신의 삶과 행위를 통하여 가장 완전하게 하나님의 선교사로 살았던 것이다.

최근까지 동성애에 관한 사회적인 이슈는 한 국가의 범위를 넘어 초국가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어 동성애에 관해 법률적, 의료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차원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 II. 동성애에 관한 이론적 배경

### 1. 하나님의 창조질서

하나님은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이 되어 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도록 축복하셨다(창 1:27-28, 2:18-24 ; 롬 1:26).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의 마지막 날 곧 여섯째 되는 날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최종적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만물의 영장으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섭리이며 명령이다. 육체적·성적 결합, 정신적·심적 결합, 영적인 결합으로 일평생 희로애락을 같이하며 부부생활을 하도록 축복하셨다. 창세기 1:28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셨다. 그러므로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슬리고 축복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다.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는 자녀를 낳을 수 없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성을 부여하였다. 그것은 남성과 여성이다. 아담과 하와는 인류 최초의 인간으로 에덴동산에서 각자의 다른 성을 가지고 살아갔다. 뱀의 유혹에 의하여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먹은 이후 눈이 밝아져 죄가 드러나 에덴동산에서 쫓겨나 아담은 평생 땀을 흘려서 고생해야 살아갈 수 있는 벌을 받았고, 성적인 결합에 의해 하와는 해산의 고통이 따랐다. 다시 말하면, 에덴동

4) “평등을 향한 14년의 기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대혁신문(2021.10.17.)일자 기사내용  
<<https://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44>>

산에서의 금지된 열매를 먹을 경우 “네가 정녕 죽으리라”는 말씀을 들었던 아담과 하와가 실제로 열매를 먹고 나서 바로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귀를 상실하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였다고 볼 수 있다(유선명, 2017: 26).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적인 결합은 하나님의 창조질서 안에서 이루어진 자연적인 사랑의 관계였던 것이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목적에 위반한 인간이 선택한 최악의 결과이다(최선범, 2020: 137).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동성애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법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간본성의 자연법을 역행하는 죄로 규정하였다(롬 1:26-27). 아무튼 동성애는 창조주가 설정한 이성애의 원리를 역행하는 모습이고, 그 책임을 외면하며, 창조원리에 도전하는 성적 쾌락을 조장하는 행위로 본다(정일웅, 2019: 67). 따라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성적 표현과 행위에 관한 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성애이다(Bahnsen, 최희영 역, 2000: 33).

## 2. 인간창조 :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남성과 여성

창세기 1:26-27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2:23에서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sup>5</sup>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다(창 1:27). 창세기 1장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와는 아담에게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창조세계와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청지기적 사명을 부여받았다(창 1:28).

남성과 여성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자카르(זָכָר)와 네케바(נְקֵבָה)는 성정체성이지만 성차별이 아니다. 창세기 2장에서 남성성 ‘자카르’는 한 남자 ‘이쉬’(אִישׁ)로, 여성성 ‘네케바’는 한 여성성 ‘이샤’(אִשָּׁה)로 개별화된다고(창 2:23). 여기서 ‘형상’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צלל(צֶלֶל)’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속성과 외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어휘다. 또한 여기서 ‘모양’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데무트(דְמוּת)’는 외모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물체를 표현할 때 사용한다(박경희, 2020: 183). 카톨릭 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구분하고 인간의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은 상실되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모양은 원죄로 파괴되었다고 본

5) 옥필훈(2019). “하나님의 선교’에 근거한 피학대아동을 위한 복지선교의 현황과 실천방안”, 전주대학교 신학박사논문, 52. ‘하나님의 형상’이란 첫째, 성서에서는 처음사람(Urmensch)을 비롯한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어서 존귀함과 존엄성을 가진다는 뜻이고, 둘째, 창조적인 질서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로서 함께 동등하다는 뜻이며, 셋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피조물에 대한 통치의 권한과 동시에 책임을 가진다는 뜻이다(창 1:26).

다(김은수, 2014: 24). 그러나 여기에서 ‘형상’과 ‘모양’은 동의어를 나열한 것으로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신득일, 2016: 9).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것으로 이성애의 성관계는 육체적인 결합을 훨씬 능가함으로 서로 보완되는 인격간의 융합이며, 더 깊은 영적 보완성을 육체적 차원으로 보여 주는 상징에 불과한 것이다(Stott, 양혜원 역, 2021: 35).

### 3. 성서와 동성애

#### 1) 구약시대와 동성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 이후 살인(창세기 4장), 음란(창세기 9장), 간음(창세기 16장), 동성애, 음행(창세기 34장), 매춘(창세기 38장) 등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말세가 되면 소돔과 고모라 때 노아홍수 때같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원인 중 하나도 동성애(Homosexuality)를 위시한 음행죄로 말미암음이었다(창 19:23-25).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패역하고 음란하여 최후에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셨다. 그리하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보여 주셨다. 베드로후서 2:6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유다서 1:7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색(음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따라서 교회 안에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행한 죄의 모형에 따라 동성애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는 종말론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암시한다(유 1:7). 실제 로마제국이 멸망한 원인 중 하나도 로마, 폼페이 등 로마제국이 정복한 지중해 방대한 나라들의 음행과 동성애자들 때문이었다.

마태복음 24:37-39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두고 시집하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눅 17:26-30) 여기에서 “먹고”(τροφή)는 깨무는, 씹는, 바작바작 소리를 내며 먹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마시고”(πίνω)는 자리를 옮겨가면서, 걸음걸이가 비틀비틀하면서 계속해서 마셨다는 뜻이다. “장가가고”(γαμέω) “시집가고”(γαμιζω)는 인류의 보존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나, 노아 당시 사람들은 세속적인 일에만 관심을 두었을 뿐, 영적인 일에는 전혀 무관심하여 돌연히 다가온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 것이다.

레위기 18:22에서 “너는 여자와 교합함과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성경은 결혼 밖의 부도덕한 성관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로 보고 있다. 레

위기 18:25은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레위기 20:13에서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하고 있고, 신명기 27:21에서 “무릇 짐승들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고 하고 있다. 이 계명은 신약시대에 폐지된 것이 아니다. 신명기 23:17-18에서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여기에서 “미동”은 남자 창기(male prostitute)를 말한다. “가증한 것(תועבה)”는 구역질이 날 정도로 가장 혐오스럽고 증오한다는 의미이다.

## 2) 신약시대와 동성애

로마서 1:26-27에서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순리(natural relations)는 자연적 관계 곧 남자는 여자와 부부간의 성관계를 말하나, 역리(unnatural relations)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 부도덕한 성관계를 말한다. 이 같은 동성애는 수치스런 일, 가증한 일, 혐오하는 일이다. 로마서 12:2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3:13-14에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다.

고린도전서 5:11에서 “만일 어떤 형제가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토색하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고린도전서 6:9-10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거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을 가리킨다. 동성애자들도 예수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면 주홍같이 붉은 죄, 먹보다 더 검은 죄도 예수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영생을 받아 누릴 것이다. 고린도전서 6:19-20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후서 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 III. 동성애의 실태와 사회적 이슈

#### 1. 동성애의 실태

에이즈(AIDS :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의 약자임)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이라고 하는데, 문란한 성교(sex)·항문성교·질성교·구강성교 등으로 발생하는 불치의 병으로 98%가 주로 동성애자들(homosexuals)에 의하여 발생되며, 아프리카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이성간의 성 접촉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희생자들도 많이 있다. 2011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에이즈(AIDS)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13세부터 19세까지 청소년들 중 94.9%는 남자끼리 항문성교에 의하여 감염되었다”고 보도되었다. 우리나라 2013년 질병관리본부의 HIV/AIDS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총 1,114명의 HIV/AIDS 감염인이 신고되었으며, 모두 성 접촉으로 나타난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20명(28.7%)로 가장 많으며, 30대 268명(24.1%), 40대 241명(21.6%) 순으로 20-40대가 전체의 74.4%를 차지하고 있다(Hamer et al., 1993: 321). 최근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 발간하는 2022년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신규 HIV 감염인은 1,066명으로 전년대비(975명) 91명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내국인 신규 HIV 감염인 중 조사에 응답한 582명 중에서 응답의 99.1%(577명)은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경로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577명 중 남성 감염인 348명은 동성 성접촉으로 응답하였고, 여성감염인 17명은 이성 성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응답하였다(질병관리청, 2023: 8).

#### 2. 동성애에 관한 사회적 이슈

기독교윤리연구소(2020)에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관점에서 동성애 옹호론과 반대론의 논거가 제기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동성애에 관한 사회적 이슈를 담고 있는 내용 중에서 동성애의 범죄성 여부, 동성애의 유전성 여부에 대한 논란, 동성애의 성적 지향의 의미, 인권침해 또는 차별금지의 문제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동성애의 범죄성 여부

영국에서는 1957년 울펜든 보고서(Wolfenden Report)와 그 결과로 생겨난 1967년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은 21세가 넘는 성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행한 동성애 행동은 범죄가 아니라고 인정하였다(양혜원, 2021: 13). 우리나라에서는 동성간의 성행위는 기독교적으로 율법에 반하는

&lt;표 1&gt; 동성애 옹호론과 반대론 근거

논거	동성애 옹호론자	동성애 반대론자
유전학적 근거	본래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 쌍둥이를 대상으로 유전적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쌍둥이 중 한 명이 동성애자라고 해서 다른 쌍둥이 역시 반드시 동성애자임을 보여 준 연구결과는 없었다는 것이다.
철학적 논거	여러 동물들에게서도 동성애 행위가 발견된다.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배치되는 행위라는 뜻을 가진 신학적인 개념이다.
인권적 근거	정의와 인권에 근거해서 그 정당성을 주장한다.	하나님이 합법적인 것으로 허락하지 않은 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수 없다.
성경적 근거	· 소돔과 기브아 주민들의 죄는 원래 동성애가 아니라 불친절, 강간미수, 천사들과 동거하려는 욕망이었다. · 레위기의 율법은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	· 성적인 부정은 우상숭배의 사례로 예시될 수 있지만 양자는 서로 구별되는 죄이다. · 동성애를 의식법의 일부로 파악하여 오늘날 동성애를 허용해야 한다면, 동성애와 함께 강간, 근친상간, 수간도 도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 참고자료: 기독교윤리연구소(2020)「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적 답변」,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28-136면 정리.

죄(sin)일지는 모르나 현행법상으로는 범죄(crime)이 아니다(송오식, 2018: 192). 다만 균형법 제92조의 6에서는 군대내에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는 차별금지사유로서 ‘성적 지향’을 들고 있고, 성적 지향의 개념 안에 동성애가 포함되는 만큼 법논리적으로 동성애는 금지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동성애의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경우와 같이 형사정책적으로는 사회의 범죄관의 변화로 종래 범죄로 생각되던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완전한 합법화를 국가가 선언하는 경우도 있다(옥필훈, 2022: 22). 연구과제로서 최근 동성애에 관한 범죄신학적인 접근으로 마음에 관한 죄, 행위에 대한 죄 그리고 신에 대한 죄까지 그 연구범위를 확장하여 그 연구대상으로 할 수 있다.<sup>6</sup>

## 2) 동성애의 유전성 여부에 대한 논란

동성애자인 해머(Hamer)는 1993년 114명의 남성 동성애자의 가계를 조사하여 모계 쪽으로 상당수 남성 동성애자인 조카 또는 삼촌이 존재하므로 X염색체 위에 동성애 유발 유전자가 있을 것으로 추측하였고, 두 명의 남성 동성애가 형제가 있는 40가계의 X염색체를 조사하여 X염색체 위에 있는 Xq28이란 유전자군과 동성애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를「사이언스(Science)」

6) “범죄신학은 가능한가?” 크리스천투데이(2013.05.29.)일자 기사내용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264100>>

지에 발표하였지만, 1999년 라이스 등의 일부 과학자가 52쌍의 동성애자인 형제 사이의 유전자 공유 결과와 동성애자가 아닌 33쌍이 일반 형제 사이의 유전자 공유결과를 비교하여 Xq28이 남성 동성애와 관련이 없다고 해머의 논문이 잘못되었다는 사이언스(Science)』지에 논문을 발표하자(길원평 외, 2016 : 50-51) 해머를 비롯한 연구팀이 2005년에는 남성 동성애는 Xq28이란 유전자군과 관련이 없다고 자신의 연구결과를 반복하였다(Mustanski et al., 2005 : 272). 최근들어 가장 대표적인 대규모 연구는 2016년 존스홉킨스대학 교수진들이 진행된 방대한 연구결과로서 “게이, 레스비언, 트랜스젠더들이 특정한 성적 지향성이나 성 정체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고,<sup>7</sup> 2018년 브로드인스티튜트(Broad Institute)의 안드레아 가나(Andrea Ganna) 교수가 47만여명의 사람들의 유전자를 철저히 분석하여 “X염색체가 동성애와 관련이 있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sup>8</sup>

### 3) 젠더 이데올로기와 동성애의 성적 지향성의 의미

젠더(Gender)개념은 20세기 인간이 만들어 낸, 자연과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구성된’(socially constructed) 이데올로기적인 개념이다(이승구 외, 2023: 5).<sup>9</sup> 젠더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1960년대 성전환 수술을 받은 한 소년의 성장과정을 추적해 연구했던 의학 심리학자 존 머니(John Money)였는데, 그는 생물학적인 성을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에서 성 대신 젠더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길원평 외, 2022: 82-85).<sup>10</sup> 성의 사회문화적인 표현인 남성성(masculinity)과 여성성(femininity)이 젠더 표현인데, 이러한 개념의 젠더를 보다 포괄적인 것으로 보고 생물학학적 성 개념의 우위에 두려고 한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라는 생물학적 성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젠더와 일치하는 것이 당연하고 규범적(normative)이다(길원평 외, 2022: 80).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의 정의에 따르면 성적 지향이란 남성, 여성 또는 양성애에 대한 감정적이고 성적인 지속적인 끌림을 의미하며, 동성애란 동성애적 성적 지향을 뜻한다(송외식, 2018: 195). 차별금지법에서 차별금지의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성적 지향성과 동

7)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주장, 과학적 증거 불충분”, 크리스천투데이 2016.08.23.일자 기사내용.

8) “미국 연구팀, 동성애 유전자, 존재하지 않는다”, 크리스천투데이 2018.10.22.일자 기사내용.

9) 1990년대 중반부터 ‘퀴어 신학(queer theology)’은 왜곡된 성경해석과 신학을 통하여 동성애와 젠더개념을 정당화하고자 하여 동성애를 비판하고 있는 성경본문들을 해석학적으로 뒤집어엎어서 동성애와 무관하거나 오히려 역으로 동성애를 미화하는 본문들로 둔갑시켜 놓고 있다.

10) 부르스 리머(Bruce Reimer)라는 남아아가 생후 8개월 때 포경수술 부작용으로 음경에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게 되어 22개월이 되었을 때 부모를 설득하여 성전환수술을 하게 되었고 브렌다(Brenda)라는 여자아이로 양육되었다. 그러나 브렌다는 사춘기 때 자신의 성체성 혼란에 빠지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1세 때 남성호르몬을 투여받고, 유방을 제거하고 음경성형술을 받았으며 25세 때 세 아이의 어머니인 여성과 결혼을 하였다. 그는 성 역할(sex role)과 구별되는 젠더 역할(gender role)이라는 개념을 창안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으나 그의 성전환 실험 실패가 1997년 폭로됨에 따라 그의 연구는 국제적으로 악명높은 스캔들이 되었다.

성애는 같은 의미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며, 다만 법적인 논의의 대상인 동성애는 심리적인 차원의 내면적 끌림이 아니라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성행위를 의미한다(최성훈, 2022: 613).

#### 4) 인권침해 또는 차별금지의 문제

① ‘인권’이란 우리 사회의 특정 계층이나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전술적으로 남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단어 중의 하나이다(이태희, 2019: 107).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동성애자 인권’이다.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그들이 느끼는 차별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동성애를 잘못되었다고 가르치지 말고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다. 제헌헌법 이래 그 동안 수차례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는 현행 헌법은 혼인이 남녀 양성의 결합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남녀간의 결혼만을 결혼으로 인정하는 것을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없다(아가청, 2017: 35).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고 판결하였다.<sup>11</sup>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에서 최초로 제정된 이래 2023년 10월 현재 7개 시·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고, 동성애의 합법뿐만 아니라 동성애가 나쁘다고 하면 벌금 또는 실형을 언도받도록 하는 악법이다.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될 경우 동성애와 성전환은 본인의 성적 지향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쳐 주어야 한다. 2012년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에서 동성애자나 성전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Bill 13’이라고 하는 교육법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다(이태희, 2019: 112).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5년 6월 26일, ‘5대 4’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동성애 법을 통과시켰고,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애법 합헌 결정은 미국의 승리이고, 이를 반대하는 기독교인은 미국의 적이다”라고 하면서 대환영하였다.

② 차별금지법은 개별법에 의해 이미 보호되고 있는 장애인이나 양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성별,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등을 이유로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 차별하거나 비판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제3조). 차별금지법상 ‘성별’은 남성, 여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제2조 제1호). 성은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사회적 성인 젠더(gender)를 의미한다. 그리고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제2조 제4호). 또한 ‘성적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고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11) 헌법재판소 1994.2.24, 92헌마43.

(제2조 제5호).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의 근간이 되는 법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인권을 주요 국정 이념으로 제시함에 따라 2001년 당시 새천년민주당 이미경, 정대철,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여 같은 해 5월에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차별행위 사유로서 “성적 지향”을 포함함으로써 동성애가 선량한 성도덕에 부합되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2006년 노무현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에게 입법추진을 예고한 후 2007년 성적 지향을 포함한 7개 차별금지 사유가 삭제된 형태로 발의되었고, 2008년 및 2011년 재발의된 차별금지법은 2012년 회기만으로 폐기되었으며, 2014년 발의 역시 동성애 교육을 강화한다는 우려로 철회되는 등 7차례에 걸친 차별금지법 발의는 모두 무산되었다. 2016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 182개 대학교에 공문을 보내 성적 지향이 포함된 「대학원생 인권장전」을 제정하라고 권고하였고, 90일 이내에 이를 보고토록 하였다.<sup>12</sup> 2020년 6월 다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같은 해 9월에 국회 법사위원회에 상정되었고, 2021년 6월에는 10만명 이상의 국민동의를 얻어 전환기를 맞이하였으나 2022년 현재 아직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최성훈, 2022: 617). 특히 동성애와 관련하여서는 차별금지법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관점에서 기독교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첫째, 차별금지사유로서 동성애를 전제하는 성적 지향 내지 성별정체성이 명시된 점은 동성애를 인정하는 동시에 이에 반하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둘째, 헌법에 명시된 신앙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때,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동법 제41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하여 제42조상의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제41-44조에 의해 3,000만원 이하의 강제이행금을 부과받거나 제49조 및 제51조에 따라 소송을 통해 손해액의 2-5배 사이에 해당하는 징벌적 배상액을 부과받는다. 동법 제52조에 따라 입증책임이 상대방에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동성애자에게 유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조례, 학생인권조례 등의 관련법에서도 수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특히 기독교 신앙의 가치관을 침해함으로써 가정을 위협하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지적될 수 있다(민장배 외, 2021: 853-854). 따라서 차별금지법은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했다는 성경적 세계관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김영한 외, 2023: 218).

### 3. 학제간의 시각 : 법률적, 의료적 그리고 신학적 쟁점

#### 1) 법률적 쟁점

미국 연방대법원은 1986년 바우어스 대 하드윅(Bowers v. Hardwick)사건에서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조지아주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동성애를 범죄화하

12)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하나요”, 크리스천투데이 2017.12.31.일자 기사내용.

여 처벌하였던 텍사스주의 법률이 로렌스 대 텍사스주(Lawrence v. the State of Texas) 사건에서 2003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성행위와 같은 은밀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개인에게 보장된 자유를 침해하는 등 동성애의 비범죄화의 논거를 제시하여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이준일, 2009: 264). Lawrence판결은 동성애가 단순히 동성간의 ‘성적 행위’가 아니라 동성애자가 자신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타인과 맺는 ‘내밀한 사적인 관계’이며, 동성애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권과 사적인 삶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허순철, 2008: 128). 2013년 6월 26일 미국연방대법원은 그동안 이성간의 결혼만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결혼보호법(Defence of Marriage Act)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므로 동성결혼을 인정하였고, 2015년 6월 26일 미국연방대법원은 미국 전역에 동성결혼 합법화를 공포하였다. 2015년 3월 17일 미국연합장로교회(PCUSA)는 결혼의 정의를 ‘남과 여 사이의 결합’ 이 아닌 ‘두 사람 사이의 결합’이라고 바꾸는 규례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sup>13</sup>

우리나라에서 2001년 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 ‘성적 지향’이라는 국회인권위원법이 제정되었다. 2013년 서울서부지법은 ‘성정체성’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하였는데, 트랜스 남성에게 성전환수술없이 성별을 정정해 주는 판결을 하였다(서울서부지법 2013.3.15., 2013호파1406). 그리고 대법원은 20대 초반 남성들의 동성애를 다룬 ‘친구사이?’라는 영화가 성인등급(청소년관람불가등급)으로 분류된 사안과 관련해 동성애 자체만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두11266). 그 안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하여 볼 때, 동성간의 성행위는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이고, 항문성교와 추행 모두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라고 하고 있다.<sup>14</sup> 최근 헌법재판소는 2023년 10월 26일에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을 징역 2년 이하에 처하도록 한 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죄위헌법률심판에서 국군의 전투력 보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다는 등의 이유로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sup>15</sup>

## 2) 의료적 쟁점

미국정신의학회(APA)가 1965년에 발간한『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2판』(DSM-II)에서는 동성애를 성격 장애로 분류하였으나, 1973년 수정판(DSM-II-R)에서는 동성애를 질병이나 질환이 아니라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의 장애라는 범주로 대체하였다. 1980년 DSM 제3판은 동성

13) “미국 PCUSA 내 한인 교회들 이탈 움직임”, 뉴스앤조이, 2015.04.02기사내용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8792>>

14) 대법원 2008.5.29., 2008도2222 ; 헌법재판소 2002.6.27, 2001헌바70 ; 헌법재판소 2016.7.28., 2012헌바258.

15) 헌법재판소 2023.10.26. 선고 2017헌가16등

애를 ‘자아 이질적(ego-dystonic)’이라는 부드러운 표현을 썼는데, 1987년 수정판(DSM-III-R)에서는 이 조항마저도 삭제되어 동성애를 진단하는 범주가 사라지고 말았다(허호익, 2010: 238). 정상적인 부부, 즉 남녀 간의 정상적인 성관계가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등 건강을 촉진하나, 동성 간 성행위는 그 자체가 항문성교 등 비정상적인 양상으로 진행되기에 건강상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진다(김지연, 2023: 97). 1997년 국제역학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에 남성 동성애자들의 기대 수명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다룬 보고서에 따르면, 1987년부터 1992년까지 브리시티 콜롬비아 주의 밴쿠버와 같은 캐나다 대도시 중심부에서 나타난 보건자료 중 의미있는 수치를 뽑아내었는데, 본격적으로 에이즈 치료제가 상용화되기 전인 1990년대까지만 해도 20대 동성애자 및 남성 양성애자는 일반 남성보다 8-20년이나 수명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연, 2023: 112). 2015년 보건복지부의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에 따르면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 경로가 밝혀진 사례의 대부분인 99% 가량은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사례”였고, “그 중 이성간 성접촉과 동성 간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사례의 비는 대략 6:4(3,364명: 2,216명)로서 이성간 성접촉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나 전체 HIV 감염인의 91.7%가 남성임과 동성애자 역학조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남성동성애자간 성접촉이 주요 전파경로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기술하고 있다(아가청, 2017: 16). 역사적으로 동성애는 하나의 노이로제라는 전제로 정신 치료를 하여 왔는데 그 치료방법으로는 정신분석(전환치료), 혐오치료 및 집단 치료 등이 있다(민성길, 2023: 393). 동성애자로 구성된 미국 동성애 게이 및 레즈비언의학회(homosexual Gay & Lesbian Medical Association)은 동성애자들에게 여러 정신장애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sup>16</sup>

### 3) 신학적 쟁점

동성애 문제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성경 본문과 해석으로는 다음과 같다.

#### ① 소돔과 기브아 이야기(창 19:1-13 ; 사 19:22)

동성 간의 성행위를 ‘소돔미(sodomy)’라고 부르는 것은 창세기 19장에서 유래하는데, 소돔의 남자들은 롯의 남자 손님들을 강간하고 싶어한다. 롯은 대신에 아직 남자와 관계를 갖은 적이 없는 자기 딸들을 내어 주는데, 전통적으로 여성을 얼마나 업신여겼는지를 보여주는 끔직한 제안이지만(Zondervan, 양혜원 역, 2023: 41), 창세기 19장에서 소돔 사람들이 롯의 손님들에게 시도한 동성 간의 성폭행은 대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만연한 인간의 죄악상을 대변하고 있다(최성훈, 2022: 622). 소돔과 고모라가 받은 심판은 성적 타락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그

16) <http://www.glma.org/>

범위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다(최선범, 2020: 119). 유대 민간전승에 의하면 소모과 고모라는 전형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주제로서 동성애를 지적한다(최선범, 2020: 121). 또한 에스겔 16:49-50에서 “가증한 일”을 동성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sup>17</sup>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소돔의 죄가 동성애임을 말해 주는 구절은 유다서 1:7에서 “다른 육체를 따라”로서 정상적인 육체가 아닌 동성의 육체를 쫓는 것을 의미한다(황선우, 2023: 74). 창세기 19:5의 소돔 사람들의 “상관하리라”고 말한 것과 사사기 19:22에서 기브아 사람들이 “관계하리라”는 표현의 히브리어 단어 “야다(יָדָה)”는 단순히 “알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성관계(intercourse)를 의미하는 용어(황선우, 2023: 71)로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최성훈, 2022: 62). 다시 말하면, 롯은 소돔 사람들에게 ‘이런 악을 저지르지 말라’고 간청하였고, 소돔 사람들의 요구에 대하여 롯은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음을 말하면서, 그들을 너희에게 내어 줄 터이니 그들에게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고, 이 형제(손님)들에게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 것을 간청하고 있기 때문이다(창 19:7-8).

## ② 레위기 성결법전에 나타난 동성애 풍습에 대한 바울의 이해 (레 18:22 ; 20:13)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18:22)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20:13).

위의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면, 동성애자의 행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규범에 반하는 것으로 금지되어 있다(정일웅, 2019: 70). 다시 말하면 레위기 18:22에서는 가나안의 풍속인 동성애를 따라 행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고, 레위기 18:29에서는 동성애와 같은 가증한 죄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다(황선우, 2023: 75). 다만 레위기 18장은 동성애 행위자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나 레위기 20장은 동성애 행위를 이스라엘 신앙공동체의 믿음과 규범을 위반한 사회적인 악으로 규정하고 있다(최선범, 2020: 123). 따라서 레위기의 문맥은 우상숭배가 아니라 가정생활 범주 안에서 지켜야 할 여러 성적 행위의 규범을 제시하고 있고, 특히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타락과 더불어 성적인 타락의 한 특징으로 동성애를 가증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레위기 18:22과 20:13을 오경 전체의 맥락에서 읽을 경우, 청중은 성적 결합을 이성 간의 성교에만 국한한 것으로 이해하여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와 연결할 수 있다(Zondervan, 양혜원 역, 2023: 34). 헬라이어 “아르

17)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겔 16:49-50)

세노코이타이”(ἀρσενοκοίται)는 모두 레위기 18장과 20장에서 규정하는 동성애 금지명령에서 따온 것으로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남성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따라서 남자와의 잠자리에서 성교행위를 지칭하는 “남자와 잠자리에 눕는다”는 표현을 통해 남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처럼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맺는 것을 가증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최선범, 2020: 127).

### ③ 당시 퇴폐적인 이교 사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묘사(롬 1:26-27)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주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 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롬 1:26-27).

바울은 동성애 성적 행위가 인간 내면의 자리인 마음에서 일어나는 정욕, 욕심, 음욕이 마음대로 움직일 때 일어난다는 것을 지적한다. 로마서 1:26에서 “순리”란 문자적인 의미로 “자연”을 의미하고, “역리(개역 개정판에서 번역된 용어임)”란 문자적인 의미로 “자연을 벗어난”(παρὰ φύσιν)을 뜻한다(Rogers, 2006: 77). 로마서 1:26은 남성들 사이의 성행위를 언급하는 1:27과 평행되는 구조상 여성들 사이의 성행위로 보아야 한다(신현우, 2023: 99). 바울은 동성애의 핵심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본성(nature)에 역행한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목적에 역행하여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위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사회의 기본질서를 위반하는 것이다(신현우, 2023: 135). 로마서 1:27에서 “음욕”으로 번역된 ὀρεξις(오렉시스)는 대상을 목적으로 하는 집착적인 갈망 또는 동물적인 욕구충족을 위한 욕망으로 이해한다면, “부끄러운 일”로 번역된 ἀσχημοσύνη(아스케모쉬네)는 성교행위를 완곡하게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신현우, 2023: 138).

### ④ 동성애적 관행이 포함된 바울의 가르침(고전 6:9-10 ; 딤후전 1:9-10)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전 6:9-10).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 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딤후 1:9-10)

위의 성경말씀에서는 도덕적 및 윤리적 책임성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Sanelli & Brown, 2018: 29). 또한 동성애를 죄로 지적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동성애에 해당하는 말이 바로 ‘남색하는 자’이다. 여기서 ‘남색하는 자’는 동성애에 해당하는 말로 헬라어 원문에서 고린도전서 6:9에서 ‘탐색하는 자’로  $\mu\alpha\lambda\alpha\kappa\acute{o}\varsigma$ (말라코스)와 고린도전서 6:9에서 ‘남색하는 자’로  $\acute{\alpha}\rho\sigma\epsilon\nu\omicron\kappa\omicron\iota\tau\eta\varsigma$ (아르세노코이테스)란 단어가 사용되었다. 또한 디모데전서 1:10에서 ‘남색하는 자’란  $\acute{\alpha}\rho\sigma\epsilon\nu\omicron\kappa\omicron\iota\tau\eta\varsigma$ (아르세노코이테스)가 사용되었다. 다만 고린도전서 6:9-10에 근거하는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의 죄목에 동등한 위치에서 언급되어 있으며, 후자의 ‘남색하는 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음행하는 자의 죄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언급하고 있다(정일웅, 2019: 79).

## VI. 동성애의 실태와 사회적 이슈와 선교신학적 대응방안

### 1. 교회의 사회적 책임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동성애 문제이다. 동성애는 스스로를 ‘문화’로 포장하고 ‘인권’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동성애자들이 사회적 소수로서 주장하는 이념적인 명분에 대하여는 경계하되, 헌법정신에 따른 기본적인 인권에 대하여는 보장하여야 함은 당연하다(최성훈, 2022: 615). 동성애는 개인, 가정, 사회 및 국가에 에이즈 등과 같은 각종 유해한 질병을 초래하는 보건적 및 의료적 폐해 이외에도 윤리적·풍속적 혼란과 경제적 폐해 등 수많은 심대한 폐해를 초래할 수 밖에 없는 부도덕한 성 풍속이자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혼인이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거스리는 것이요, 가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비기독교적이며 비윤리적인 잘못된 행위이다. 동성애의 문제를 다루는 제1원칙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복음의 핵심은 차별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해야 한다. 다만 사랑에는 그것을 인도해 줄 율법을 요한다(Stott, 정옥배 역, 2022: 533). 가톨릭의 입장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권고 사랑의 기쁨 56항에서는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문화적 성 역할(gender)은 구분되지만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젠더 이데올로기가 “남성과 여성의 본질적 차이와 상호성을 부정”한다고 진단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 경계하는 입장이다

(유혜숙, 2021: 108). 복음주의 교회들의 대표적인 국제적 연합단체인 국제 로잔은 지난 40여 년 동안 ‘전도의 우선성’과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 왔다(박보경, 2013: 10). 국제 로잔은 동성애자만이 죄인이 아니므로 인간적인 차별은 금하면서도 동성애들에 대하여 복음적 전도와 보살핌을 계속해야 한다는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Stott, 정옥배 역, 2022: 503-547). 따라서 동성애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복음의 필요한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박종원, 2016: 14).

## 2. 선교신학적·목회적·교육적인 전략

최근까지 기독교 신학자들은 동성애를 종교적인 죄로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현대 개신교 신학자 칼 바르트(K. Barth)는 동성애를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 타당성을 용인하기를 거절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질병, 성도착 현상, 타락과 부패”로 묘사하였고, 독일 신학자 판넨베르그(W. Pannenberg) 역시 “성경은 동성애 행위를 명백하게 거부해야 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허호익, 2022: 153-154). 한국사회에 동성애를 정당화시키고 확산시키고자 하는 세력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음을 깨닫고 교회는 동성애의 문제를 의료적, 정신역동적 그리고 사회적 이슈를 넘어서서 영적인 이슈로 간주하고 예배와 교육 등을 통하여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준비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김승호, 2003: 70). 목회현장에서 상담을 필요로 하는 동성애자를 만나게 될 때 그들은 죄의식, 수치심 그리고 비밀을 지키려고 하는 고독감 등이 존재하므로 이성애자들과 여러 가지 면에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사랑으로 대할 필요가 있다(박노권, 2003: 256).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윤리 내지 성신학이 정립되어야 하고, 개교회에서 지역 사회를 품고 성소수자들을 위한 목회돌봄적인 전략이 필요하며, 무지와 편견과 두려움과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 등을 물리치기 위한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며,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위기까지 온 상황은 교회에서 성도덕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치고 용서와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제시하여야 한다(Stott, 정옥배 역, 2022: 537). 실제 미국 매사추세츠의 한 공립 학교에서 친동성애적 교육을 실시하기 전과 후에 동성애를 경험한 학생의 비율이 50% 이상 올라갔다는 보고가 있다(Camenker, 2012: 4).

## 3. 고통을 위로하고 회복을 위한 기도 및 사랑의 자세

동성애는 선천적이거나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기인한 죄이다. 다시 말하면, 동성애자들이 동성 간의 사랑에 이끌리게 된 것은 자기의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

조질서를 위반한 결과적 산물이다. 따라서 이러한 동성애적 끌림이 행동으로 연결될 때에는 죄가 됨을 이해해야 한다(박종원, 2016: 21). 청소년 동성애자의 경우, 초기 경험에서의 충격은 우울과 자살에 영향을 주게 되고, 때로는 동성애적 성향으로 또래에게 맞거나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가족에게 폭력적인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건강한 자아상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주게 되어 무력감과 우울감을 수반하는 것이다(Lee, 2000: 403-408). 동성애는 두 인격체 사이에 육체적인 쾌감과 정서적인 친밀감을 나누며, 상대방으로부터 보호, 배려, 경제적 도움 등을 받기에 다른 중독보다 더 끊기 어려운 성중독에 해당한다(길원평 외, 2014: 9). 또한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회 풍토가 동성애를 행동으로 옮기게 만들게 하므로 가정에서 올바른 성역할 모델이 필요한 것은 자명하다. 1970년대 이후 일반상담에서 동성애상담이 거의 정체성을 상실한데 반하여, 기독교관점에서 심리역동적 치료, 인지행동치료 등 기독교상담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다(성덕혜, 2000: 102). 무엇보다도 교회공동체는 동성애자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동성애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회복을 위한 기도와 사랑으로 목회 돌봄이 이루어져야 한다(이창규, 2019: 201). 이 때 규칙적인 성경 읽기, 기도, 친교, 봉사 등과 같은 규칙적인 훈련은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 VII. 나가는 말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질서, 즉 남과 여 및 이성애라는 질서가 존재한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창세기 2:24)라고 하고 있다. 이는 인간은 이성적 및 감성적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되는 데 어울리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데 어울리게 된다(Michael, 자유와인권연구소 역, 2017: 290). 따라서 동성애적 성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 이 됨이 명백하다(오성중, 2017: 246). 한편 인권이라고 할 때에는 인간의 인권을 의미하고 그들의 인권이 중요한 이유는 존귀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을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한다(유혜숙, 2021: 116). 따라서 동성애자의 권리를 나타내기 위한 인권을 주장할 때에는 특권으로 변질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는 것은 소수자 자유와 권리를 위해 다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소수자에게 실질적으로 특권을 달라는 이치이다(김영한 외, 2023: 221). 또한 성경이 심각한 죄에 대하여 언제나 동일하고도 분명하며 일관되게 증언하는데도 “중간 지점에서 협상하자”는 식의 타협적이고 동조하는 제3의 길을 찾으려는 노력은 바람직하지도 않다(Robert, 조계광 역, 2020: 99).

성서에서 동성애에 관한 근거를 찾고 이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과 성찰이 필요하다. 특히 창세기 19장의 소돔의 죄를 해설하는 에스겔 16:50과 유다서 1:7을 고려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동성애를 제외하고 논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퀴어신학에서 소돔 사람들과 같은 강제적인 성폭력이 아닌 동의하에서 이루어지는 동성애는 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은 당시 사회상을 바로 보지 못하고 성경에서 동성애를 가증한 죄로 기록된 동성애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해석상의 오류가 발생한다 (황선우, 2023: 89). 무엇보다도 동성애자가 잘못된 성행위를 중지하고 바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말씀과 기도 등 경건훈련을 통하여 매일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영위함으로써 이러한 정체성의 변화가 궁극적인 행동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 고 문 헌

- 길원평·도명술·이명진·임완기·이세일·정병갑 (2016). **동성애 과연 타고나는 것일까?**. 서울: 라온누리.
- 길원평·민성길 (2014).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고찰. **신앙과 학문**, 19(1), 7-36.
- 길원평·민성길·류현모 (2022).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다**. 서울: 국민일보.
- 김승호 (2016). 로잔운동관점으로 본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한국교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 **개혁논총**, 제40권, 341-373.
- 김승호 (2003). 선교 신학적 입장에서 본 동성애와 선교적 대처에 관한 연구. **복음과 선교**, 3권, 57-72.
- 김영한·김진두·왕대일·최정훈·소기천·이승구·황선우·신현우·정일권·곽혜원·안창호·조배숙·조영길·정소영·민성길·김지연 (2023). **신학자, 법률가, 의학자 16인이 본 동성애 진단과 대응 전략**. 서울: 북랩.
- 김은수 (2014). **사회복지와 선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김광수·신인철·최선범·김정봉·박경희·김태식·김종걸·양병모·안희열·임도균·노은석·권선중·최현숙·현숙경 (2020). **동성애, 성경에서 답을 찾다**.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 김지연 (2023). **덮으려는 자 펼치려는 자**. 경기: 사람.
- 민장배·이수환 (2021). 가정사역을 통한 선교방안 연구. **신학과 실천**, 74, 845-871.
- 박노권 (2003). 동성애에 대한 목회상담학적 접근.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8, 245-265.
- 박종원 (2016). 로잔운동을 통한 동성애 이해와 선교적 고찰. **복음과 선교**, 제33집, 13-53.
- 백상현 (2017). **가짜인권, 가짜혐오, 가짜소수자**. 서울: 밝은 생각.
- 성덕혜 (2000). 기독교적인 동성애 상담의 현대적 경향. **상담과 선교**, 8권 1호, 101-116.
- 송오식 (2018). 동성애에 대한 규범적 접근. **종교문화학보**, 제15집, 185-229.
- 신득일 (2016).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동성결혼. **신앙과 학문**, 21(4), 7-23.
- 아가청 (2017).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21가지 질문**. 서울: CLC.
- 양혜원 역 (2021). **존 스토티의 동성애 논쟁**. Stott, J. R. W. (2015). *Same-sex partnerships?: a Christian perspective*. 서울: 흥성사.
- 양혜원 역 (2023). **동성애에 대한 두 가지 견해**. Zondervan. (2016). *Two Views on Homosexuality, the Bible, and the Church*. 서울: VIP.
- 오성중 (2017). 동성애 문제에 대한 신약신학적·영성신학적 고찰. **성경과 신학** 81, 241-300.
- 옥필훈 (2019). **‘하나님의 선교’에 근거한 피학대아동을 위한 복지선교의 현황과 실천방안**. 박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 옥필훈 (2022). **범죄학검형사정책**. 인천: 진영사.

- 유선명 (2017). 동성애 관련 구약본문의 핵심논점, **개혁논총**, 제43권, 9-35.
- 유혜숙 (2021). 한국의 차별금지법안에 관한 연구-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중심으로-. **민족연구**, 77호, 100-120.
- 음선필 (2020). 동성애와 인권. **교회와 법**, 6(2), 142-173.
- 이승구·곽혜원·이상원 (2023), **퀴어신학이 왜 문제인가?**. 서울: CLC.
- 이준일 (2009). **섹슈얼리티와 법**. 서울: 세창출판사.
- 이창규 (2019). 동성애자를 위한 목회돌봄과 상담-사랑과 변화의 관점에서-. **장신논단**, 제51권 2호, 179-209.
- 이태희 (2019).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대한민국의 미래. 이 시대 대학 총장에게 길을 묻다**. 경기: 킹덤북스.
- 자유와인권연구소 역 (2017). **성공할 수 없는 동성애 혁명**. Michael, L. B. (2015). *Outlastion the Revolution*. 서울: 쿠파출판사.
- 정상운 (2019). **이 시대 대학 총장에게 길을 묻다**. 경기: 킹덤북스.
- 정옥배 역 (2022). **현대 사회문제와 그리스도의 책임**. Stott, J. R. W. (1999). *New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서울: IVP.
- 조계광 역. (2020). **성경이 동성애에 답하다**. Robert, A. J. G. (2015). *The Bible and Homosexual Practice: Texts and Hermeneutics*. 서울: 지평서원.
- 질병관리청 (2023). **HIV/AIDS 신고 현황 연보**. 청주: 질병관리청.
- 최성훈 (2016). **섹스와 복음**. 서울: CLC.
- 최성훈 (2022).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실천과 실천**, 제29호, 609-630.
- 최희영 역 (2000), 죄악으로서의 동성애, Bahnsen, G. L. (1978). Homosexuality: a biblical view. **상담과 선교**, 8(1), 29-65.
- 허순철 (2008). 미국헌법상 동성애 - Lawrence v. Texas판결의 헌법적 의의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9(1), 111-134.
- 허호익 (2010). 동성애에 관한 핵심 쟁점-범죄인가, 질병인가, 소수의 성지향인가?. **장신논총**, 제38집, 237-260.
- 허호익 (2022). **동성애는 죄인가**. 서울: 동연.
- Camenker, B. (2012). *What same-sex "marriage" has done to Massachusetts*. Massachusetts: MassResistance.
- Mustanski, B. S., DuPree, M. G., Nievergelt, C. M., Bocklandt, S., Schork, N. J. & Hamer, D. H. (2005). A genomewide scan of male sexual orientation. *Human Genetics*, 116, 272-278.
- Lee, R. (2000). Health care problems of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patients. *West Journal of Medicine*, 172, 403-408.

- Rogers, J. (2006). *Jesus, the Bible, and homosexualit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 Sanelli, M. & Brown, D. (2018). *The gospel, the church, and homosexuality*. CA: GBF Press.
- Tarzian, M., Ndrio, M. & Fakoya, A. O. (2023). An Introduction and Brief Overview of Psychoanalysis. *Palo Alto*, 15(9), 6.
- 뉴스앤조이, 2015.04.02.일자 기사내용. “미국 PCUSA 내 한인 교회들 이탈 움직임”
- 대학신문, 2021.10.17.일자 기사내용. “평등을 향한 14년의 기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 연합뉴스, 2024.06.01.일자 기사내용 “서울광장 인근서 퀴어축제...”서울 한복판을 우리의 자긍심으로”
- 크리스천투데이 2013.05.29.일자 기사내용. “범죄신학은 무엇인가?”
- 크리스천투데이 2016.08.23.일자 기사내용.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주장, 과학적 증거 불충분”
- 크리스천투데이 2017.12.31.일자 기사내용.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하나요”
- 크리스천투데이 2018.10.22.일자 기사내용. “미국 연구팀, 동성애 유전자, 존재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8.5.29., 2008도2222.
- 헌법재판소 1994.2.24., 92헌마43.
- 헌법재판소 2002.6.27., 2001헌바70.
- 헌법재판소 2016.7.28., 2012헌바258.
- 헌법재판소 2023.10.26. 선고 2017헌가16등
- <http://www.glma.org>. (검색일 2024.6.15.)
- <https://www.ksrcr.org/xe/> (검색일 2024.6.15.)

# 동성애에 관한 선교신학적 연구

## A Missiological Study on Homosexuality

옥 필 훈 (전주비전대학교)

### 논문초록

동성애에 관한 사회적 이슈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패러다임과 더불어 신학적 체계와 해석에 영향을 주게 된다. 많은 나라에서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는 즈음에 동성애에 관한 젠더이데올로기는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의와 반대의 움직임이 존재한다.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의 형상성을 입은 자들로 하나님의 창조질서 안에 있다. 구약시대에 동성애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가증한 죄로 다루었고, 신약시대에는 바울의 해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다. 사회적 이슈를 담고 있는 동성애에 관하여 범죄성 여부, 유전성 여부, 성적 지향성 그리고 현대적인 인권의 의미를 다루었다. 또한 법률적, 의료적 그리고 신학적 쟁점사항을 논하였다.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동성애 문제이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위반하는 죄이지만, 교회 안에서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끌고 고통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목회 돌봄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제어:** 동성애, 하나님의 창조질서, 하나님의 형상성, 차별금지법